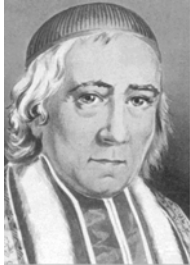


2011년 9월

귀욤 조셉 샤미나드와 함께, 새로운 전쟁! 새로운 사명!

큰 격변의 시기에 샤미나드 신부님은 새로운 형태와 새로운 방법으로 사명을 시작하고 적용하는 방법을 아셨다.



"우리는 아주 새로운 세계의 한 가운데에 있습니다! 나는 프랑스에 있지만 외국에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저는 무엇을 말해야 하고 무엇을 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나는 내가 직접 어떤 일에 다가가서 그것들을 만나는 대신에 오히려 그 일들이 나에게 다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복되신 마리아께 매일 의지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샤미나드 신부의 편지 II-575 - 20 : 1831년 1월 랄란느 신부에게)

"교회의 가르침에 따라 존엄하신 천주의 성모님만이 이단을 극복하셨고, 현대의 사이비 철학과 종교적 무관심이 함께 공격해오는 상황에 대한 위대한 승리와 지극한 영광이 성모님께 있습니다." (Canon Valentini 에게 보낸 편지, 1839 - V-1182)

"이것이 분명히 두 수도회의 독특한 성격이며 가족적 특성입니다. 윤리적으로 교화시키고, 믿음을 보존하고 전파하며,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을 성화시키는 위대한 사업에 있어서 우리들은 복되신 동정녀의 특별한 도구이며 보조자들입니다. 성모님은 당신의 거의 무한한 사랑에 의해 영감을 받은 행동에 대한 열정과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는 우리가 일생동안 성모님께 충실히 봉사하며 성모님이 우리에게 시키는 모든 것을 지체없이 실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우리가 약속한 대로 우리의 삶과 힘을 성모님의 봉사에 바칠 수 있음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피정지도자에게 보낸 편지 1839)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모든 마음 안에서 다스리시기를 예수께서는 바라십니다.... 그것이 마리아께서 어느 누구도 멸망하기를 바라지 않는 이유입니다. 그것이 성모님의 고독이 보편적인 고독인 이유입니다."

"그 본보기에 의해 영감을 받아, 샤미나드 신부님은 어느 일만 배타적으로, 이 사도직만 해야 한다고 사도직으로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신부님은 당신의 어머니의 처분에 스스로를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성모님이 부르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고, 성모님이 시키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함으로 성모님의 보편적 고독 속에서 성모님을 보조하기 위해 샤미나드 신부님은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J. 심러, 4대 총장, 71 호 회람, 1896년)

샤미나드 신부님의 몇 가지 일

샤미나드 신부님과 동료들이 하신 일의 다양성에 대해서 우리들은 탄복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들은 시대의 요구와 하느님의 부르심 그리고 행동의 가능성에 대한 적응성의 대단한 능력을 보여주었다. 그분에 대해서 한 번 보도록 하자.

"모든 환경에서의 남녀노소의 가톨릭 신자들, 특별한 연계성 안에서 재결합한 인상적인 신자들의 무리가 교회의 교리와 도덕의 순수함 속에서 어떠한 허영심이나 인간적인 자만심이 없이 우리의 거룩한 종교를 실천한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며 믿음의 횃불이 다시 타오르게 하도록 하늘 나라는 나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샤미나드 신부의 편지 1076, 그레고리오 16 세 교황에게)

"혁명의 재앙 이후로 어떤 현명한 사람이 도덕적인 세계를 움직이는 지렛대는 다른 받침점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지 않았겠습니까? 새로운 소달리티가 예전보다 더 방법과 자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EP 1-154.8)

소달리티가 어떤 사람이 자신의 믿음을 재활성화하기 위해서 올 수 있는 곳이어서 그 자체가 하나의 사도직(사명)이라면, 이는 다른 사람의 믿음을 다시 일깨워주는 더 좋은 일을 하기 위함이다. 다음이 소달리티가 할 수 있는 여러가지의 활동들이었다.

1. 회원들이 성사를 준비하도록 어린이들이나 성인들을 위한 교리 지도 .
2. "오베르뉴(Auvergne)의 아이들": 어린 굴뚝청소부들의 교리 지도와 교육. 소달리스트의 회원인 아돌프 두푸쉬 (Adolphe Dupuch) 가 알제(Algiers)의 첫 번째 주교가 되기 전에 이를 이끌었다.
3. 빈자, 병자, 임종자에 대한 가정 방문이나 병원 방문.
4. 지도 받는 기간 중에 후원
5. 가난한 아이들에게 입을 것을 주기.
6. 남자들이 죄수 방문.
7. 종교적으로, 그리고 직업적으로 활성화되는 제빵인들의 단체.
8. 1817년 보르도의 사도직에 이어지는 연례 피정.

소달리스트가 이끌었던 사업, 자주 마들렌의 소달리트를 모방하여 함:

1. 매춘의 일을 그만둔 이들을 위한 **Miséricorde**의 사업: 마리-테레즈 드 라무루스가 1801년 1월 2일 책임을 맡았으며, 샤미나드 신부가 6년간 그녀의 영적 지도자이었다. 3월 25일에 그녀 역시 마리아에게 자신을 봉헌한 9명의 젊은 여인 중의 하나가 되었는데 평신도 소달리트의 여성 브랜치의 하나를 시작했다. 1813년 이후에 미세리코드는 수녀회의 조직으로 바뀌었다.
2. **샤르트롱 소달리티 (Chartrons Sodality)** (보르도의 성 루이 본당) – 사제 소달리티 소속 리가농 신부가 지도.
3. **크리스찬 친구들**, 문화 그룹, 생 울랄리 본당에서 모임, 사제 소달리스트이었던 마르투르트 신부가 지도, 보르도의 성가정 수녀회의 창설자이었던 피에르-비엔베누 노아유가 첫번째 회원이었다.
4. **청원자들의 본당 그룹**(12세에서 16세까지의 청소년) 성십자가 본당의 그룹은 안투안 깐또(노동자, 소달리스트, 나중에 마리아니스트 수도자가 됨)에 의해 동반되었다.
5. **지혜의 친구들**, 기숙사 학교의 학생들 그룹, 방학 중에 아르망 지노(사제 소달리스트였으며 나중에 부배의 주교가 되었음)를 만났음.
6. **좋은 책**, 대출도서관이 Julien Barault 신부에 의해 시작됨. 1820년부터 이 일은 샤미나드 신부에 의해서 인가되었고, 소달리스트에 의해서 관리되었다. 1852년에서 1870년까지 마들렌에서 하게 되었다.



보르도의
성십자가
성당

***내적 봉헌의 그룹**

이는 1809년에서 1814년 사이에 나폴레옹의 소달리티 억압의 때에 발전했다. 그들은 오늘날의 재속수도회와 함께 갖고 있는 점이 몇 가지 있다. 일반적으로 소달리티 회원들에게는 비밀이었고 알려지지 않게 그들은 수도회의 창립 이후에 조금씩 조금씩 사라졌다.

소녀들 그룹:

1. **마리아의 열가지 (또는 열두가지)의 덕행을 기리기 위한 모임.**
2. **성모께 대한 종신 봉헌**의 단체: 성모님에 대한 그들의 사랑을 종신토록 살기 위하여 회원들은 한 주를 그들 사이에서 시간 별로 나누어 성모님의 덕행을 본받기 위해서 성모님의 덕행을 묵상하였다.

젊은 남자 그룹:

1. **소달리티 센터**는 사적 서원에 투신하고 그룹의 성화를 위해 일하는 이들을 비밀리에 모았다.
2. 수도 **state**(religious **state**), 과정의 연속. 그들은 정결, 순명, 그리고 “젊은이들의 구원에 봉헌(EP 1.127.1)”하는 세 가지 서원을 했다. “영혼 구원을 위한 열정은 **상태(State)**의 구체적 목표이다. 이는 특별히 소달리티의 젊은이들, 보존, 성장과 완덕을 향하여 나아간다.” (EP 1.128.5)

젊은 여자 그룹

1. 과부 또는 30대 이후의 사람들은 “정결, 순명, 그리고 소달리티에 봉헌하는 세 가지의 서원을 한다. 이 마지막 것은 소달리티 안에서의 스타빌리티가 포함된다. ” (EP 1.131.1).
2. **제 3 회 (재속회)** 마리아의 딸 수도회의 재속 3회, 1817년 아장에서 소달리티의 봉사 아래에서 독실한 소달리스트들과 같이 창립했다.

수도 단체

1. 1816년 5월 25일 아장에서 아델이 세명의 친구들과 함께 **마리아의 딸 수도회**의 첫 번째 공동체를 창립했다. 아델과 샤미나드 신부사이엔 있었던 오랜 시간 동안의 성숙과 서신을 통한 대화 끝에 “소중한 계획”이 마침내 실현되었다.
2. 1817년 10월 2일에 장 밥티스트 랄란드와 네 명의 다른 소달리스트는 새로운 수도회를 세우기 위하여 자신들을 샤미나드 신부의 손에 맡겼다. **마리아회**가 태어났다.

그들의 선교사적 활동은 아주 많았다:

1. **평신도 소달리테**에 대한 봉사: 이것은 두 수도 단체의 첫 번째의 활동이었다. 창립될 때의 모습의 수도회: 평신도 브랜치의 성장을 위한 지원. 그들은 일에 있어서 협조하였다: 크리스찬 친구, 좋은 책들, 오베르뉴의 아이들,
2. **초등, 중등학교의 가르침**. 시작 때부터 자신을 교육에 헌신한 평신도 소달리스트, 수녀, 수사들이 교육장소에 함께 하였으며, 수가 늘어난 그곳에서도 함께 하였다. 샤미나드 신부의 1836년 편지에 “우리가 신세대의 교육에 소홀히 한다면 사회를 혁신하기 위하여 무슨 수단을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샤미나드 신부의 편지 4-914).
3. **교사들을 위한 사범학교**. 오직 두 가지만 구체화된다. 1830년의 혁명은 창설자에 의해서 예견되었던 계획의 발전을 가로 막았다: 학교들의 네트워킹과 “마음에 덕행과 종교를 심기 위한” 교사 양성을 통하여 프랑스 전체를 재크리스찬화하는 것. “우리가 제의하는 목적: 크리스찬의 배가와 덕행의 진정한 원칙을 모든 곳에 알리는 것”
4. **시골지역의 복음화**. 1836년 오쉬(프랑스의 남서부)에서 마리아의 딸 수도회의 제 3회의 창립 덕분에 (1922년, FMI와 함께).
5. **농업 학교와 상업 학교**. 이 시기의 청소년들의 직업교육, 인문교육, 크리스찬 교육에 대한 큰 필요에 응답하기 위하여

감격적인 우리의 유산!



“우리의 모든 사도직의 기원을 돌아다 보면, 모든 사도직의 머리에는 샤미나드 신부님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도네 추기경, 1837년에서 1882년까지 보르도의 대주교).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의 말씀...

“샤미나드 신부님이 경험했던 것과 같은 격동의 시기에, 시대의 징표는 읽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그 시대의 요구와 필요한 척도를 이해하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셨습니다. 혁명적인 불안을 직면하신 것뿐 아니라, 조금은 덜 극적이지만 덜 위험한 종교적 무관심의 위협을 직면하셨는데 이 무관심은 기독교를 그 중심에서 약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창립자는 진정한 성성에 뿌리를 박은 상상력과 사도적 용기를 보여 주셨습니다.” (2001년 7월 7일)

“대희년 기간 동안 하는 마리아니스트의 창립자, 귀욤 조셉 샤미나드의 시복식은 신자들에게 특별히 교회에서 멀리 있는 이들과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이들에게 다가가기 위하여 믿음을 증거하는 새로운 방법을 찾는 것이 바로 신자들의 직무라는 것을 신자들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귀욤 조셉 샤미나드 신부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성령과 연결시켜주는 세례에 뿌리내리도록 각 크리스찬들을 초대합니다.” (2000년 9월 3일)

이번 달에 경축할 날들: 3 샤미나드 신부 시복 11주년 (2000) – 5 사도들의 성모 Apostles : 1818년 9월 5일 SM 첫 번째 서원 – 12 성모성명대축일, SM 수호축일